

| 교회 및 교우 소식 |

1. 한사랑교회 주일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오늘은 성령강림주일로 지킵니다. 설교: 장흥기 목사님(온사랑교회 담임)
3. 예배 후 유아세례교육이 있습니다(김재영 성도, 이연수집사 가정).
4. 금요기도회(5/24):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 8시 온라인(Zoom)으로 모입니다.
5. 클로버데일 지역 연합예배(Bread We Break): 5월 26일(주일) 저녁 7시, 호프교회 본당
6. 출타성도: 유성민 김미나 김정희

대표기도 : 5/19 박현영 5/26 박효순 6/2 안혜숙 6/9 오종길

| 지난 주 헌금 |

주일헌금	2, 3, 5, 8, 24, 29, 41, 42, 45, 49, 55, 57, 60, 엄지윤, 무명2	\$587.00
십일조	17, 42, 60	\$1,085.00
1달러의 행복		
감사헌금	32, 45	\$270.00
선교헌금		
총계		\$1,942.00

헌금 interac e -Treansfer 방법

*Recipient Name : "Vancouver Hansarang Church"

*Recipient E mail : vhc20100101@gmail.com

*Amount : 헌금액 *Message : 헌금 종류, 헌금 번호, 기타 내용

| 5월 사역 안내 |

#홀리스 사역: 5월 1, 15일 첫째, 셋째 수요일 저녁 5:45-7:45
#금요기도회: 5월 24일 넷째 금요일 저녁 8시, 온라인(Zoom)
#토요 아침기도회: 5월 11일(토) 오전 8시, 2층 Youth room
#온가족예배: 5월 12일(주일), 설교: 김성민 목사님
#성령강림주일: 5월 19일(주일), 설교: 장흥기 목사님(온사랑교회)
#클로버데일 지역 연합예배(Bread We Break): 5월 26일(주일) 저녁 7시, 호프교회 본당

| 섬기는 분들 |

담임목사: 신용규 목사 / 청년부&Youth: 김성민 목사 / 어린이부: 권해리 사모
행정: 서지민 전도사 / 반주: 박난주 사모

제16권 20호 2024년 5월 19일



밴쿠버한사랑교회
Vancouver Hansarang Church

www.hansarang.ca
18625 Fraser Hwy Surrey, B.C
담임목사 신용규 604 861 2175

오후 2시		인도 신용규 목사
*입례찬양	주만 바라볼찌라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새번역)	다같이
*찬송가	새찬송가 183장	다같이
대표기도		박현영 권사
성경봉독	사도행전 2장 1-4절	인도자
설교	오순절에 임한 성령	장흥기 목사
합심기도		다같이
축도		신용규 목사
광고		인도자
*파송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같이

We dream of true revival and life transformation in our times.
We want to see all the nations of the world come to know
and worship God through a new generation.

* 표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회

화~금 아침 6시
온라인 줌(Zoom)

어린이부 예배 청소년부 예배

주일 오후 2시
청년부 모임
주일 오후 3시 30분

금요기도회

둘째 넷째주 금요일 저녁 8시
온라인 줌(Zoom)

| 목회 칼럼 |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가지 병폐들을 보면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습니다. 밥을 못 먹어서, 입을 옷을 없어서가 아니라 정신과 사상, 마음의 문제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세상과 사람들을 접해보면 그 속에는 온갖 병들고 왜곡된 생각과 마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가 속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도 어려운데, 하물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일까요.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려도 사람은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각종 제자훈련과 성경공부를 해도 지식만 늘어날 뿐 좀처럼 말과 인격이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3년동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서로 크다 경쟁하며, 섬기기 보다는 섬김을 받으려 하고, 겨자씨 만한 믿음이 없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으며,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기보다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할 세상 나라에 대한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 뿐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에도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순절의 성령과 같은 체험은 그 시대의 특수한 체험으로서 우리가 다시 그 성령의 역사가 재현되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로써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능력과 임재를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지만 언제나 좋은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 교회 조직 |

[운영위원회]

유성민 장로
김준영 집사
김난형 권사

[사역위원회]

사역팀장: 신용규 목사
운영위원장: 유성민 장로
예배팀장: 김준철 집사
관리팀장: 오종길 집사
행정팀장: 서지민 전도사
재정팀장: 김난형 권사
친교팀장: 김미나 권사
선교팀장: 김현준 집사
중보기도팀장: 한옥주 권사
새가족팀장: 안혜숙 권사
다음세대팀장: 유진우 집사

[목장]

God's will 목장(목자: 유성민)
늘푸른 목장(목자: 김준영)
서로인 목장(목자: 유진우)

[한사랑 Sisters]

회장: 김윤숙 집사
부회장: 임형선 집사
부회장: 박난주 사모

[한사랑 Dreamers]

회장: 오종길 집사
총무: 김준철 집사

[한사랑 청년부]

섬김이: 유진우 집사

| 오늘의 말씀 |

“오순절에 임한 성령”

행 2장 1-4절

설교: 장흥기 목사

들어가는 이야기 - 감사의 의미를 지닌 구약의 절기

- 유월절: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
- 초막절: 광야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 오순절(맥추절, 칠칠절): 구원받고 난 후에 보리를 추수하게 된 것을 감사
- 광야시절에 주어진 절기: 광야 같은 일상의 삶 속에서 감사하며 살라는 것

본문 이야기 - 오순절에 일어난 3가지 사건

1. 성령께서 오심(행2:1)
 -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 제자들의 충격, 공허, 영적인 공황 상태
 - 성령강림: 함께하심, 길을 알려주심, 소망을 가짐, 인도하심, 일상을 살게 하심
2. 하늘이 열림(행2:2-3)
 -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의 임재
 - 사도행전 7장 55-56절: 스데반 집사 순교할 때 성령의 충만함
3. 말씀이 임함(행2:4)
 - 베드로의 변화: 자기 의와 충동 -> 하나님의 말씀
 -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수천 명의 영혼이 구원을 얻음
 -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 -> 오순절(출19:1-3)

나가는 이야기

- 오순절: 성령이 오셨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한 날
-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하늘 문이 열리고 말씀의 은혜가 임함
- 우리의 일상을 인도하시는 성령님
- 우리의 허전한 마음을 은혜로 채우시는 성령님

목상을 위한 질문

- 우리에게도 성령강림이 필요할까요?
- 오순절 성령강림의 의미는 무엇인지 말해봅시다
-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가 필요한 이유를 나누어봅시다